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히틀러가 숭배한 탓에, 한동안 외면 당한 작곡가 브루크너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은 교향곡 작곡가는 누구일까? 아마도 탄생 200주년을 맞았던 안톤 브루크너일 것이다.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의 웅만한 오케스트라들 모두 예외 없이 그의 교향곡을 한 곡 이상은 연주했으니까. 이 삼십 년 전만 해도 일부 클래식 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이름조차 생경했던 작곡가였는데,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그의 작품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한몫했다. 바로 히틀러가 바그너 다음으로 좋아하는 작곡가가 그였다는 것. 나치는 그의 음악을 게르만 민족주의를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했고 그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루크너의 음악은 서구 세계에서 한동안 연주되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 덕에 명예나 부를 얻었던 것도 아니다. 그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훨씬 전인 1896년에 이미 사망했으니까. 히틀러로 인해 공연히 오명만 뒤집어쓴 셈이다.

히틀러가 바그너 다음으로 좋아한 작곡가 나치의 브루크너 띄우기는 1937년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브루크너 사망 40주기 행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히틀러가 직접 참석한 이 행사에서 브루크너를 기리는 음악회와 함께 나치당의 화합이 열렸고 선전 장관인 괴벨스는 그의 흉상을 제막하면서 그를 국가사회주의의 문화적 우상으로 추켜세웠다. 이후 그의 작품은 나치의 공식적인 의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음악이 되었다. 심지어 1945년 4월 히틀러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라디오 방송국은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 2악장 아다지오를 틀었을 정도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작품은 나치 이데올로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반 유대주의자였고 음악 자체가 게르만주의를 지향했던 바그너와는 달리 히틀러의 브루크너에 대한 숭배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 공감과 연민 때문이다. 브루크너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북부의 린츠 출신인 데다가 어려서 부친을 잃은 공통점이 있는 히틀러는 평생 빈의 주류 예술가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고통을 겪었던 브루크너에 대해 깊은 인간적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빈의 국립 미술 아카데미에 두 번이나 낙방한 탓에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라.

브루크너는 린츠 근처 안스펠덴이라는 농촌에서 태어났다. 학교 교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마을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연주하고 지역의 선술집에서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만능 음악가였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음악에 친숙했던 브루크너가 특별한 재능을 보이자, 그의 부모는 브루크너를 교육환경이 좀 더 나은 인근 마을에 사는 사촌에게 보내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게 해주었다. 하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병이 들자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일을 도와야 했다. 이듬해 아버지는 사망했고, 브루크너는 홀지에 홀로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해야 하는 소년가장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이웃 마을의 하녀로 들어가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를 성 플로리안 수도원으로 보내기 위해 수도원장을 찾아가.

수도원장은 이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서 이미 변성기가 다 된 13살의 브루크너를 소년성가대원으로 받아주었다. 변성으로 인해 보이 소프라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었지만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 덕분에 3년간이나 수도원에 머물며 인근 학교에서 교

‘바보 천재’로 불린 오스트리아 작곡가

44세 때 교수로 뒤늦게 음악계 진출
어머니 사망, 잇단 작품 실패로 시련

60세돼서야 교향곡 7번 인정받아
미완성 교향곡 9번 남기고 하늘로

히틀러 집권 훨씬 전 사망했지만
나치, 그의 음악 선전도구로 이용



육을 받는 혜택도 누렸다. 브루크너는 17살이 되어 처음으로 보조교사 자리를 얻어 수도원 밖으로 나갔다가 그 후 21살이 되던 해 성 플로리안 수도원에 보조교사로 부임해서 돌아온다. 이후 10년간 수도원에 머물며 소년성가대원들을 가르치는 한편, 오



성 플로리안 수도원의 브루크너 오르간. 브루크너는 이곳의 보조교사 일을 하기도 했다.



1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 안톤 브루크너. 2 히틀러는 바그너 다음으로 브루크너를 좋아했고, 나치는 그의 음악을 선전도구로 이용했다.

르간 연주와 특별 행사를 위한 작곡도 맡는 등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계속 임시직에 머물 뿐이었다. 결국 그는 긴 수도원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한다.

오르간 연주 실력이 뛰어났던 브루크너는 어렵지

않게 린츠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44살에 빈으로 떠나기 전까지 다시 10년 넘게 이곳에서 충직하게 일했고, 프란츠 요제프 루디기어 대주교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는다. 안정된 직장을 얻은 후 그는 작곡을 체계적으로 다시 공부했다. 이 기간에 작성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연습곡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노력파인지 잘 보여 준다. 그 결과 브루크너는 빈 악우협회에 주최하는 공식 시험에 통과해 교수 자격증을 따게 된다. 이때 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은 “우리가 그를 평가할 게 아니라 그가 출제된 시험을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고 했단다.

자격증이 생긴 브루크너는 1868년 드디어 빈 음악원 교수로 취직이 되어 빈 음악계로 진출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아직 그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허여 일까지 했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그는 신경 쇠약에 시달렸고 강박 증세가 심해져 세 달간 요양소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늦깎이 작곡가로서 선보인 교향곡들의 잇따른 실패 역시 그를 매우 힘들게 했다. 심혈을 기울여 작곡했건만 그의 곡들은 대부분 연주를 거절당했고 어쩌다 초연이 되어도 청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히틀러 사망 전할 때도 브루크너 작품 틀어
그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온다는 운조차 따르지 않았다. 교향곡 3번을 작곡한 지 4년이 지

나서 겨우 빈 필하모니와 초연 일정이었었는데, 연주자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휘자 헤르베르트 가프가 사망한다. 그 바람에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거의 없는 브루크너 자신이 지휘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청중들은 연주 도중 조소를 터트렸고 곡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나가 버리는 바람에, 연주를 끝냈을 때는 충실한 제자인 말러를 비롯해 고작 10여 명 정도의 청중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빈의 권위 있는 비평가였던 한슬릭은 개인적인 악감정까지 실어 그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브루크너가 자신과 적대적 관계인 바그너를 존경한다는 이유였다.

좀처럼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서였을까. 그는 좋게 보자면 겸손했고 나쁘게 보자면 지나치게 우유부단했다. 예술가적 고집이나 독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를 들어 교향곡 3번은 수차례 수정되었는데 주로 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고 그 때문에 6개 이상의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하게 되었다. 바그너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언제나 저자세로 일관했다. 바그너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호의를 보일 때면 “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숭배합니다”라는 남사스러운 고백을 서슴지 않았다. 순박하다고 해야 할까 촌스럽다고 해야 할까. 그의 이러한 행동은 종종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고, 우스꽝스럽게 희화되곤 했다. 오죽하면 그의 재능을 잘 알았던 한스 폰 벨러조차 그를 두고 “반은 천재, 반은 바보”라고 말했을까.

50대의 브루크너는 같은 도시 빈에서 브람스가 교향곡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낭만주의 교향곡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그저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신만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은 결국 보상을 받는다. 그가 60살이 되었을 때 초연된 교향곡 7번이 관중의 커다란 환호를 받았고 빈은 물론 뮌헨과 해외에서도 그의 작품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로부터 기사 십자 훈장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빈 대학으로부터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쯤 되었으면 편히 쉴 수도 있었련만, 브루크너는 한결같이 성실하고 겸손했다. 노쇠한 몸과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4년을 교향곡 9번 작곡에 오롯이 바쳤다. 사망하던 날 병상에서도 이 곡을 손에 잡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악장을 미처 끝내지 못한 아쉬움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브루크너의 인생은 늘 실패와 노력, 그리고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나날이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이 오히려 정도다. 그토록 힘들었던 긴 세월을 그는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살았다. 그래서일까. 그의 음악은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진정한 울림으로 우리를 위로한다. 인생이 고단하고 허무할 때 듣는 브루크너는 더욱 그렇다. 히틀러 같은 악명 높은 독재자도 그중 한 명이었다는 것이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민은기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이론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음악과 페미니즘’ ‘독재자와 음악’ ‘대중음악의 역사’ 등을 주제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최근에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시리즈를 집필 중이다.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